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50호 발행일 : 2005년 11월 13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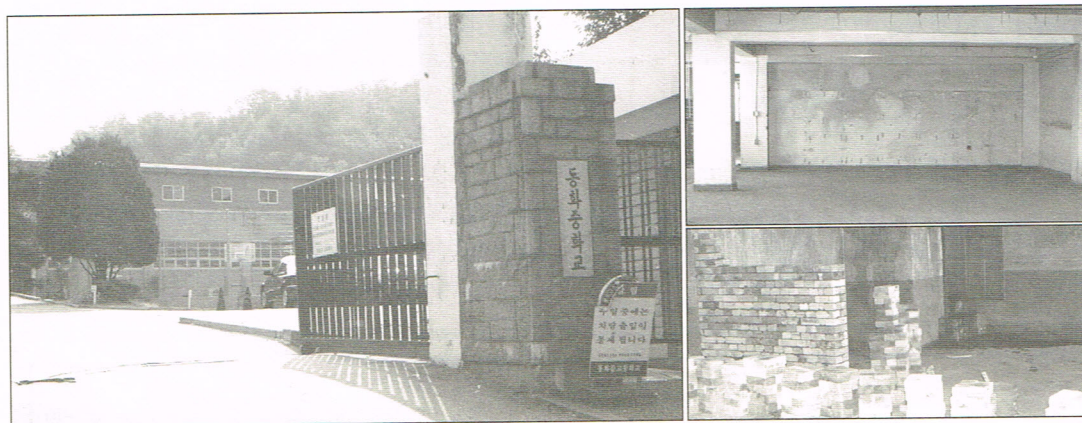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길가에교회 리모델링 계속 진행 되고 있어 오늘부터 번식기도회 동화학원에 가서 직접 드려



길가에교회 모임장소가 수리되고 있다. 교회번식추진위원장인 성백술장로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그곳에 뜨거운 애정을 쏟고 있다. 한득현집사 등 번식교회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의 공사현장 감독으로 예배처소가 몇주 후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전망이다.

홍기협집사(5-9구역,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직접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멋지고 깔끔한 설계를 그려왔고, 한옥현성도(4-10구역, 숭의여대 그래픽디자인과 교수)는 보기만 해도 산뜻한 교회로 고와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11월 중순 즈음에 완성될 홈페이지(www.gilga-e.org)를 위해 노수연집사(1-1구역)가 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길가에교회 창립예배는 오는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에 드려지게 된다.

교회번식을 위한 기도회는, 오늘부터 길가에교회 공사현장인 동화학원에 가서 오후 4시에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신여중고 정문에서 매주일 오후 3시 20분에 봉고가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주일 나눔의 물품 성황리에 수집돼



사회복지법인에 가져다 줄 의류를 수집했다.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의류를 한 아름, 두 손 가득히 가져온 물품이 약 400여점이나 되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우리의 이웃 중에서도 밝은 웃음조차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작은 베품과 나눔을 통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지난주일(6일) 나눔의 물품을 수집하는 주일에 성도들의 많은 사랑과 베품, 행복 속에서

(3면에서 계속)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주관 경로당 경로잔치 열려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교회가 박동수 집사를 관장으로 위촉하여 위탁경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 기관이다. 이번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중랑구 소속 경로당 98개 중 30여개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로잔치가 12월 1일 열리게 된다. 참석 예상 인원은 250여명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성도들의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은 생활용품 위주로 경품을 협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청을 받고자 함이다. 경품을 협찬할 수 있는 성도들은 신청을 교역자실로 해주면 된다.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져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된다. 다음 주일 2-3부 예배 시간에는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찬양대 30명의 특송과 양코르 찬양대 30명의 답송이 있을 예정이다.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찬양대는 순수하게 동호회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다녀올 정도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양코르 찬양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왔다.

다음 주일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의 기쁨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드리는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간이 될 것이다.

구역 모임, 3교구 7구역

3교구 7구역은 전국구 특성상 주일 오전에 교회 지하 1층 대화의 방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다. 15명 정도 단출한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다. 구역원간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으로 깊은 교제가 진행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한국교회 유명 목회자 24명 릴레이 특강 CTS기독교 TV로 방영돼 문동학 담임목사 '사도 요한 선교 리더십' 방영예정

한국교회 유명 목회자 24명 릴레이 특강 '성서속 지도자 리더십을 배운다'가 '세계영상선교센터' 12인의 예수님의 사람들(참조기사/국민일보 9월 30일 금요일, 기독교뉴스)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사이트 세계영상선교센터 www.wmmc.or.kr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CTS 기독교 TV를 통해 10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주일(6개월간 방영되고 있다. 방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본방송 오후 5-6시), 주일(재방송 오후 7-8시)이다.

문동학 담임목사의 '사도 요한 선교 리더십' 방영월일은 다음과 같다.

11월 28일(월요일) 1부 본방송 1시간(오후 5-6시)
12월 4일(주일) 1부 재방송 1시간(밤 7-8시)
12월 5일(월요일) 2부 본방송 1시간(오후 5-6시)
12월 11일(주일) 2부 재방송 1시간(밤 7-8시)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함께 성경인물을 통한 영적 리더십을 배우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주일 안수집사회 모임 가져



지난주일(6일) 오후 1시 30분, 제3집회실에서 안수집사회가 열렸다. 참석인원은 한윤경, 엄주청 장로와 김한중 안수집사회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회원이었다. 이창현 목사의 설교에 이어, 한윤경 장로는 당회 서기로 교회내 제반 사항에 관해 안수집사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전달하고 이해시키면서 동역을 요청하고 의견을 함께 듣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바라기는 다음에 있을 안수집사회 모임에는 더 많은 안수집사들이 함께 모여 주기를 당부 드린다.

양육클래스

나의성지를찾아서 내년 1월중 성지순례계획

양육클래스 "나의 성지를 찾아서"에서는 2006년 1월중순경 12-15일 정도 기간으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이창현 목사는 지난 봄학기부터 성지순례를 위한 사전공부 필수과정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이스 등 출애굽 경로, 바울의 전도여행경로 중 여행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순례를 계획한다. 항공비, 숙박, 식사,

관광지입장료, 가이드비용, 이동교통편, 공항세, 여행자보험료, 비자비용 등 포함가격 약 300만 원 전후가 들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현지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적인 것은 12월에 들어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순례하기를 원하는 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30에 5층 찬양연습실에서 진행되는 "나의 성지를 찾아서" 강의에 참석하면 된다. 개인적인 준비로는 하루 1시간이상 걷는 운동, 뛰는 운동을 하는 것이며, 자세한 여행관련 준비는 곧 조직될 순례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하지 않은 분 가운데 성지순례에 참석하는 경우를 위하여, 보충수업을 12월말경 10회정도(저녁시간) 계획하고 있다.

함글함글 문예지 발간 예정

매주일 나오는 함글함글에 다 신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증, 수필, 시 등을 모아 함글함글 문예지 별책을 만들려 합니다.

글을 내 주실 성도는 4층 교역자실 간사에게 교구구역과 이름, 연락처와 원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고는 E-MAIL로 주시면 편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지 발간은 글이 모이는 대로 11월 추수감사주일이나 12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6기 중보기도월례회 가져

26명의 새로운 중보기도자들 함께 더해져

11월 10일 목요일 아침부터 6기 중보기도 수료생들과 함께 전체 월례회 준비에 분주했다. 중식당에서 테이블에 꽃도 꽂아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10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보기도사역자들. 이번엔 6기생 30명이 교육을 받고 사역을 하기로 결심한 26명이 함께하여 60명 가까운 수가 모여 찬양으로 시작하였다. 정영환 목사의 기타반주로 찬양을 부르며 중보기도 월례회 문을 열었다. 6기 졸업생들이 처음 중보기도 사역 월례회에 참석하여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소감도 말했다. 사역자들 모두 일일이 돌아가며 악수례와 포옹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담당 교역자 정영환 목사는 열왕기상 17:8~16을

통해 중보기도사역자의 자세에 대해 설교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먹을 것이 없는 과부에게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가난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연약하고 나약함 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땅으로 보내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우리도 배고픈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배부르게 하셨다. 우리를 부자에게 보내심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사 주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도 하셨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함으로

써 배부르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가난과 고통에서 살아났듯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 시금 사역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역의 기쁨과 충성과 봉사를 다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통성기도 했다. 통성기도가 끝난 후에 정영환 목사의 마무리 기도가 간절하고 뜨거웠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헌신을 위하여 다짐을 복창했다. 팀별 순서로 서로의 새로운 6기생을 맞아들이고 사역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각자의 기도제목들을 내놓고 헌신하는 대화를 했다. 문동학 담임목사의 방문으로 말씀을 듣고 축도도 받았다. 이 날의 점심은 김완중 장로가 준비해 주었다.

(1면에 이어서)

구역 모임, 3교구 7구역

이번 주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의지하기"라는 교재를 이용하여 진행될 때 다니엘의 삶을 되돌아보며 각자의 삶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고향을 떠나서 부모형제와 떠난 삶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주신 기회로 알고 섬김의 자세를 굳건히 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이방 권세자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에스겔의 성전에 흐르는 물을 통하여 가슴 깊이 쓰림을 느꼈

다. 영적으로 깨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단을 대적하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신앙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굳은 다짐을 구역원들과 함께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서로 한 가정의 형제자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3교구 7구역이 섬김의 구역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구역원들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사랑의 편지반 야외 수업 다녀와



10월 25일 이인호목사 인솔로 교회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야외예배를 다녀왔다. 1부는 청수장에 마련된 공간에서 '그와 같이 될 소망'이란 주제로 하나님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해산의 수고를 다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특권을 다시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소망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경주해야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 참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서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미움을 덜어내고 고운 빛의 단풍잎에 사랑의 편지를 써보라는 이인호목사의 권면에 길가에 가로수의 단풍들이 사랑의 초대장이 되어 살랑 살랑 손짓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고백했다.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30CUP, 30대를 위한 사역



지난 10월 셋째 주일 오후 4시. 매달 한 번씩 있는 30CUP예배를 드렸다. 10월 예배에는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다. 기도는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며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기도에 관한 말씀과 함께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힘든 시간 속에 있었던 이 숙자매의 간증도 들었다. 그 간증 속에는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친밀함에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10월 예배를 통해 기도의 엔진을 돌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을 기대했다.

11월 예배는 다음 주일(20일)에 있게 된다. 이번 달 30CUP예배는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주제로 드러진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약한 것들이 자랑되어지고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 10월 16일 예배실황 CD가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있는 30CUP 데스크로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월 30CUP 예배안내

- 11월 20일 오후 4시 대예배실
- 주제 : “약한나로 강하게”

(1면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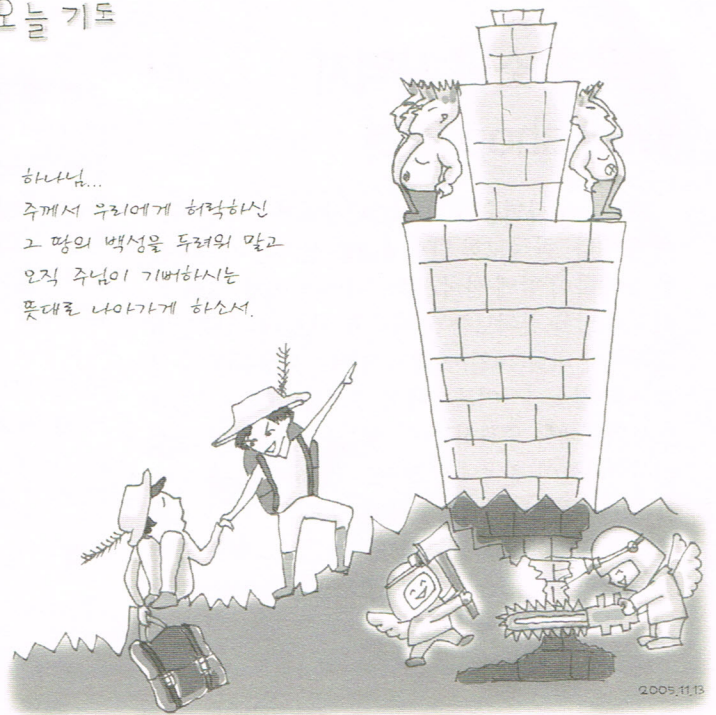
지난주일 나눔의 물품 성황리에 수집돼

이러한 나눔의 물품 수집과 전달의 작은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기회를 주시니 실상 우

리들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한다. 우리교회가 지향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나눔의 물품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이 일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올해 마지막 이번 나눔의 물품 수집 기간에 많은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복지선 교부는 감사드린다.

오늘 기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 말고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재난발생 지역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파견되어 지원 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하실 곳: 김영중 안수집사 016-741-8309)

1. 봉고나 트럭을 비상시 제공할 수 있거나 운전가능하신 분
2. 주택건설 및 보수작업에 경험이 있으신 분(목수, 벽돌, 도배 등)
3. 주택내 전기배선 및 수리 가능하신 분
4. 가전제품 수리 가능하신 분
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6. 의사, 약사, 간호사

또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하실 곳: 임기택 집사 016-214-1534)

1. 상담사
2. 노숙자들을 위한 단체 등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
3. 노숙자들을 위해 교회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
4. 의사, 약사, 간호사

2005-6년 교사훈련원 강의 오늘도 계속돼



지난주일(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소예배실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훈련원, 두 번째 강의를 있었다. 지난주 인원보다 조금 더 늘어난 275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50~60명의 신입교사들이 참여했다. ‘교사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홍민기 목사가 말씀을 인도하였다.

주님의 교회 교육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아이들과 관계 맺지 않고는 이를 이룰 수가 없다 즉 아이들과 뒹굴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과 관계 맺으려면 먼저 교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아이들의 사적인 관심과 문화를 익혀야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주중에 핸드폰 문자 보내는 것과 아이들의 행사에 관심을 가져 참석해주는 것은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 맺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에게 남과 다른 애정을 보여주는 교사를 향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의 이해할 수 없는 옷차림과 행동방식을 바꾸려는데 목숨 걸면 아이를 잃을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목숨을 걸면 알아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것을 하지 말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해주셔서 세우는 아이로 자라도록 교사가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기도를 통해 견고히 세워진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황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이 끝난 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교회학교 연령별로 모여서 교육을 받을 것이다. 썩트네, 영유아부, 유치부 교사들을 위해 노진아

전도사(전 충신교회 아기학교 전도사)가 ‘영유아 찬양과 체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레인보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와나 교사들을 위해서 김도일교수(장신대기독교교육학)가 교사지도력개발을 위한 강의를, 중등부와 고등부교사들을 위해 윤형진 목사(인천계산교회 교육목사)가 효율적인 청소년 반목회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에 신입교사들은 관심 있는 부서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내년 1월에도 신입교사대상의 훈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사역을 하느라 교사훈련원에 참석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사교육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전국 청소년 사역자 Workshop 열려

전국에서 사역중인 현 청소년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한국청소년사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보는 사역자 Workshop이 주님의 교회에서 내일(14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본부에서 주최하며 브리지임팩트사역원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한국교회 청소년사역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첫 행사라 큰 의미가 있다. 청소년사역본부에서 앞으로도 사역자들을 네트워크하며 함께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주제 : 한국 청소년 사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일시 : 11월 14일(월) 오후 4시-9시
장소 : 주님의교회 중강당
주최 : 주님의교회 청소년 사역본부
주관 : 브리지임팩트사역원
참가인원 : 선착순 400명
참가자격 : 지교회 교역자 및 교사, 청소년 단체 사역자, 신학생
16:00-16:30 찬양 및 개회선언
16:30-18:00 주제 발표
18:00-19:30 식사
19:30-21:00 패널 토의

주제 발표자 및 패널 소개

1부(주제발표) : 한국 교회 청소년 사역의 어제와 오늘

손종국(청소년교육선교회 대표) - "교회 청소년 사역의 발자취"
홍민기(브리지임팩트사역원 대표, 주님의교회 교육목사) - "한국 교회 내 청소년 사역자 교육 과정 진단"
신도배(온누리교회 교육목사) - "청소년 교회 교육 현장 진단"

2부(패널토의) : 한국 교회 청소년 사역의 내일
토의 주제 - 한국 청소년 사역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청소년 사역의 미래를 위한 창조적 제언

진행 : 홍민기 목사
패널 : 권장희(놀이미디어교센터 소장)
김채완(코람데오 대표)
윤형진(계산교회 교육목사)
임귀호(부산 SFC 대표)
조성민(새로남교회 교육목사)

2006년 청년 공동체 이끌어갈 청년리더십 선거 오늘 있어

2005년도에 기존의 전통적인 회장단 중심의 틀을 사역팀과 소그룹으로 재편하며 청년 공동체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청년 공동체에서 올해는 선거 문화를 전통적 총회 형식에서 새로이 개선된 방식으로 바꾸어 실시한다. 예년엔 총회 일자에 모여 추천과 투표를 한자리에서 진행하게 되어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지식과 기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로이 개선된 선거 방식은 먼저 선거 방식과 일정을 한 주간 동안 공지(10월 23일)하고 기도한 후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10월 30일)하고 다

시 한 주간에 걸쳐 후보자 확인과 선거명부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11월 6일)와 다시 한주간 동안의 기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표일에 투표(오늘, 13일)하는 방식으로 약 한달 간에 걸쳐서 기도와 함께 모든 선거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사람의 목회자 중심이 아닌 청년 리더십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청년공동체로 성숙해 가기 위해 행정 사역팀을 중심으로 11개 사역팀장과 소그룹의 리더들로 이루어진 청년 리더십 그룹을 형성하여 담당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간사들로 구성된 목회 사역팀과의 동역으로 이끌어가는 청년 공동체의 선거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초등부 설교말씀은 주로 구약시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존귀하게 섬김 받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선포되고 있다. 다니엘, 에스더, 다윗 등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어린 시절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을 비추어 볼 때는 더욱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고 있으며, 예배를 드린 뒤에는 각 반별로 전도사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된 내년을 위해 교사세미나에 열심히 참석중인 초등부 교사들은 벌써부터 마음 한가득 기대감에 차있다.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또 어떠한 역사로 함께 하실지 이 설레임은 교사의 직분을 갖은 자에게만 누려지는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초등부는 많이 분주하다. 이제 2005년도를 마무리해 가며 소년부로 보내야 할 4학년 친구들과의 아직 못 채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유년부 친구들을 맞이해야 할 설레임으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니 말이다. 초등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달란트 잔치와 성탄절 전야 행사 등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것이고, 2005년 한 해 동안 초등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부친구들과의 시간을 더욱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내며 마무리해야겠다.



오늘 4부 예배 안내

예배와 교회에
나선 이웃을 위
한 전도예배(오늘)에 Soul Singers가 초대된다. Soul Singers는 여성 4인조 CCM 보컬팀으로 뛰어난 가창력과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미술인 선교회

추수감사주일 맞아 전시회 가져

미술인 선교회에서는 미술관련 전시품을 다음 주일(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부터 10일 동안 지하 1층 식당의 작은 방을 이용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회내 각 분야의 미술 관련 전문인들이 몇 달 전부터 모여 함께 논의하고 계획한 것을 이번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일(20일)과 27일 주일은 지하 1층 식당의 작은 방에서 식사할 수 없음을 미리 공지해 드린다. 성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0일 수험생을 위한 새벽기도회와 23일 수능날 학부모 기도회 있어

매일 새벽 6시15분 매일 중강당에서는 청년

새벽예배에 교복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오는 고3 학생들이 있다. 이제는 고 1,2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는 이 기도회는 수능 30일전부터 시작되어 홍민기 목사와 윤은성 목사의 메시지와 고등부 유성훈전도사가 학생 한 명마다 축복기도를 해주고 있다. 함께 선배 청년들과 밥 먹고 학교에 향하는 이 기도회가 이제 10일여 앞으로 남은 수능을 향해 가는 가정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홍민기 목사가 부임하여 시작한 PTP(학부모/교사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10시에 200명이 넘는 학부모가 수능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새벽기도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1월 23일 수능 날에는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학부모들이 장신대 세계협력센터에 모여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 기도하게 된다. 관심 있는 모든 학부모들은 23일 장신대 세계협력센터로 오면 된다.

SIRES 2005 열려



05년 서울국제외식산업 · 식품 · 주방기기전시회가 11월 3일(목)부터 11월 6일(주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기간 동안 전시되는 품목은 국제적인 레스토랑, 농 · 축 · 수산 식자재, 주방기기, 먹거리 시식, 관련 서적 등 다양하며, 행사 기간 4일간 외식산업 발전과 프랜차이즈 기업 성공

사례, 급식산업 발전 방안, 와인 세미나 컨설팅을 위해 국내외 유명 강사를 모시고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전시회는 이영남 권사가 조직위원장으로 섬기는 행사였다.